

No. 2013-20

일본 경제 동향

(Japan Weekly Economic Digest)

2013. 05. 13

- ① 일본경제지표
- ② 주간경제이슈
: 엔저 가속, 100엔대 돌파
- ③ 경제정책동향
- ④ 일본기업동향
- ⑤ 한국관련워치

① 일본경제지표

□ 주간 시황지표

- 엔화환율 : 미국의 경기회복가속화 전망, 일본 기관투자자들의 외채투자 확대에 따른 엔화매도 증가로 달러당 100엔대 돌파
- 장기금리 : 엔저에 따른 주가급등의 영향으로 채권매도가 급증함에 따라 0.69% 까지 급상승

구 분	5.6(월)	5.7(화)	5.8(수)	5.9(목)	5.10(금)
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(달러당)	-	98.97	98.90	98.88	100.94
엔화의 대원화 환율(100엔당)	1,109.44	1,101.16	1,107.29	1,099.58	1,080.46
닛케이평균주가(종가)	-	14,180.24	14,285.69	14,191.48	14,607.54
장기금리(10년물 국채금리, 연리 %)	-	0.595	0.590	0.590	0.690

□ 주요 거시경제지표

- 2012년도 경상수지는 전년도보다 43% 감소한 4.3조 엔으로 과거 최소
 - 2013년 3월 경상수지는 1.25조 엔으로 2개월 연속 흑자. 엔저에 따른 해외 자회사 배당 및 이자소득의 엔 환산액 증가가 흑자에 기여
- 4월의 엔화환율은 3월에 비하여 2.9엔 엔저

구분	2011	2012	2013			
			1월	2월	3월	4월
실질GDP증가율(연율,%)	0.3	(2.0)	-			
수 출(천억엔)	653	639(637)	48	53	63	-
수 입(천억엔)	697	721(707)	64	61	66	-
對한국 수출	52.1	49.7(49.1)	4.01	4.25	5.21	-
對한국 수입	32.9	32.8(32.4)	3.12	2.92	2.81	-
직접투자(억달러)	(1,157)	(1,223)	-			
對한국 투자	(24)	(40)	-			
소비자물가(%)	0.0	▲0.2(0.0)	▲0.3	0.1	0.3	-
실업율(%)	4.5	(4.4)	4.2	4.3	4.1	-
경상수지(천억엔)	76.2	42.9(47)	▲3.6	6.4	12.5	-
엔화 對미달러 환율	79.1	82.9(80.1)	89.2	93.2	94.8	97.7
對원화(100엔)	(1,391)	(1,413)	1,197	1,166	1,161	1,148
외환준비고(기말, 천억달러)	12.9	12.5(12.7)	12.7	12.6	12.5	12.6
국채금리(10년, 연리%)	0.985	0.560	0.740	0.665	0.560	0.660

주1) ()는 역년(1~12월)기준

2) 소비자물가, 실업률, 환율은 기간평균, 자료: 닛케이신문, 재무성, 한국은행

□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(report watching site)

- 『중국의 경쟁력 : 신화, 현실과 일·미양국에의 교훈(일본어역)』 21세기정책연구소, 5월8일
*출처:<http://www.21ppi.org/pdf/thesis/130507.pdf>
- 『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및 RCEP의 조기실현』 일본경제단체연합회, 5월8일
*출처:http://www.keidanren.or.jp/policy/2013/039_honbun.html#part3

② 주간경제이슈 : 엔저로 제조업의 공동화 제동

- 미국의 경기회복 가속화 예상, 일본 기관투자자들의 외채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엔화가치가 9일 뉴욕외환시장에서 100엔대까지 하락한데 이어, 10일 동경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01엔대 전반까지 하락, 2009년 4월 이후 4년 1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

□ 배경

- 미국의 실업보험 신청건수가 시장의 예상보다 개선되어,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이 축소되고 美日 금리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달러매입이 증가
- 일본의 생명보험회사들이 외채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엔화매도 압력이 증가

□ 일본기업에 미치는 영향

- 달러당 100엔대의 환율로 일본 수출기업들의 수익이 증가할 전망
 - 일본은행의 3월 단관(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)에 의하면, 제조업 관련 대기업들이 2013년도 사업계획에서 전제로 한 환율은 85엔 22전으로 현재에 비하여 약 15엔 정도 엔고를 상정
- 일본 다이와증권은 달러당 100엔대가 정착되는 경우, 주요 기업들의 2013년도 경상이익은 전년에 비하여 45% 증가
 - 경영실적이 회복됨에 따라 제조업 관련 기업들이 대내투자를 확대하거나 종업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경우, 일본경제의 자율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
- 그러나 제조업분야에서 일본 국내생산이 회복될지는 불투명함
 - 닛산자동차 콘 사장은 3월 기자회견에서 엔저가 가속되더라도 일본으로 U턴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발언
 -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일본으로 U턴하기 위해서는 높은 법인세율의 시정, 전력부족문제 해소 등 기업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

□ 엔저 요인과 전망

- 시장관계자들은 미국경기의 회복을 배경으로 엔저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3개월 이내 달러당 105엔도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라고 관측
- 그러나 세계적으로 금융완화를 실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어 엔저가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음

- 「엔저」라기보다도 「달러고」라는 지적도 있는데, 달러당 100엔대를 돌파한 배경에는 미국경제의 회복 때문이라고 지적
 - 美연방준비제도이사회(FRB)가 금년 하반기부터 양적 금융완화 규모를 축소, 달러고의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
- 일본의 무역적자 정착 등 엔을 둘러싼 수급구조 변화도 엔저 촉진요인
 - 일본 재무성이 10일 발표한 2012년도 경상수지 흑자가 전년도 대비 40% 축소
- 일본 국내투자자들이 외국 채권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전망도 다시 엔 매도 요인으로 작용
 - 최근 생명보험회사들의 외채투자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점도 주시할 필요
- 10일 개막된 G7재무장관·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세계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·금융 정책도 논의되었으나, 엔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은 없었다는 것
 - 미쓰비시동경UFJ은행 관계자는 각국에서 금융완화를 모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,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영향이 약해져 엔저가 약화될 가능성을 전망

□ 「엔저 1년 종료설」과 「엔저 버블」 가능성

- 엔화환율전망을 놓고 개인투자자들과 시장관계자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음
 - 개인투자자들은 엔저 트렌드가 1년 내에 멈출 것이고, 달러당 105~110엔 정도로 예상
 - 시장관계자들은 엔저가 2015년까지 계속되고, 2015년 말에는 달러당 120엔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
- 2005~2007년 상황과 비교하여 현재는 美日 금리차가 적고, 신흥국들의 경기상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, 엔-캐리 트레이드에 의한 엔저 버블이 재현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닛케이신문에서 진단

□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

- 엔저의 영향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부분은 국내 수출 산업으로 일본기업과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등 주요 품목들은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
 - 산업연구원에 의하면 자동차의 경우 미국 등 주요시장에서 일본 완성차업체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어, 일본기업들이 수출가격 인하에 나설 경우 국내 완성차 업체는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됨
 - 철강, 섬유산업도 주요 해외시장에서 일본과 높은 수출 경합도를 나타내고 있으며, 가전도 프리미엄 완제품 및 부품분야에서 일본기업들과 경쟁
 - 반면,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정보통신기기, 디스플레이, 반도체, 석유화학 등은 엔저의 악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

3 경제정책동향

□ 일본정부, 제조업재생을 위해 첨단 분야 개발에 자금지원

- 일본정부는 제조업부활을 위해 첨단 분야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할 방침
 - 지원대상은 금형이 없이도 입체적인 부품을 제조하는 「3차원 프린터」와 전력제어에 필요한 「파워반도체」 분야로서, 이들 분야에 2014도부터 5년간 100억 엔 규모의 예산지원을 검토
- 3차원 프린터와 파워반도체는 소재 가공 및 전자부품 분야에서 차세대 산업 기반이 될 가능성이 있고, 구미기업들이 적극 실용화를 추진하는 한편, 일본 기업들은 특히 3차원 프린터 개발 분야에서 뒤져 있다고 판단
- 일본정부는 전기업체와 공작기계업체를 대상으로 공동개발을 위탁하여 국가 전략으로서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구상
 - 일본의 강점인 제조업을 재생시키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6월 발표예정인 성장 전략에 담을 예정
- 일본은 금형산업 등 소재가공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, 구미에서는 컴퓨터의 3차원 화상에서 수지나 금속을 조형할 수 있는 3차원 프린터가 보급되고 있음
 - 이에 경제산업성은 3차원 프린터를 먼저 F1용 부품에 응용하는 기술을 개발한 다음, 자동차부품에까지 확대한다는 전략
- 한편, 전압이나 주파수를 제어하는 장치로서 전기자동차나 가전제품에 폭넓게 사용되는 파워반도체는 미쓰비시전기와 후지전기가 높은 세계시장점유율 확보하고 있음
- 파워반도체는 기존 제어장치에 비하여 전력손실이 적고, 주변부품을 포함하면, 세계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현재보다 3배 이상 많은 25조 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

4 일본기업동향

□ 도요타자동차, 개선효과로 1.3조 엔의 생산비용 절감

- 도요타자동차의 2013년도 연결영업이익이 1조 8,000억 엔으로 전년 대비 36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는 지속적인 생산비용의 절감 소위, 개선(카이젠)효과라고 진단
 -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도에 4,600억엔 이상의 연결영업적자로 전략하자 근본적인 비용절감을 추진한 결과, 5년 동안 누계 1조 3,000억의 비용을 절감, 여기에 엔저 효과까지 가세함으로써 수익을 끌어올림
- 무엇보다도 제조라인 단축에 역점을 두고, 10만대 생산라인에서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활동을 전개
 - 불필요한 공정을 없애거나 생산라인의 길이를 절반으로 단축함으로써 설비나 인원을 대폭 조정한 결과, 고정비용이 크게 절감
 - 신설 생산라인으로 흑자를 내는데 필요한 생산대수가 위기 전 20만대에서 거의 절반수준으로 축소되었고, 설비투자도 피크시의 약 1.5조 엔에서 현재는 8,000억 엔 규모로 감소되어 상각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됨
 - 조달비용의 절감효과도 크게 나타났는데 다른 차종끼리 공유하는 부품의 수를 늘리고, 차량 1대당 3만점에 이르는 부품점수의 삭감을 추진
- 수익 증가의 다른 요인은 도요타의 대명사격인 하이브리드(HV)자동차 개발
 - 1997년 HV 개발 이후, 고가 부품과 보급을 우선시한 저가격 등이 애로요인으로 작용, 대당 손익이 흑자가 발생하지 않았음
 - 그러나 작년부터 소형HV인 아쿠어와 프리우스의 판매대수가 122만대로 확대되어, 도요타의 일본 국내 신차판매대수에서 40%를 HV가 점하게 됨에 따라, 양산효과에 비용절감도 맞물려 일본시장에서는 흑자기조가 정착
- 향후 도요타자동차의 최대과제는 최대시장인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전략임
 - 중국에서는 시장점유율 17%로 수위를 달리는 독일 폭스바겐에 비해 도요타는 5%정도로 부진
 - 신흥국의 친환경차분야에서도 구미기업들이 저가격·저연비의 다운사이징으로 선점함에 따라 HV 보급율이 낮음
 - 중기적으로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신흥국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기업성장의 관건이라는 지적

□ 일본 부품업체, 삼성 및 애플용 스마트부품 생산 증가

-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 호조, 애플의 신제품 투입 등에 힘입어 일본 부품업체들이 스마트폰의 생산 확대에 박차
 - 엘피다메모리는 4월부터 대만 자회사인 렉스칩에서 스마트폰 모바일용 DRAM 생산을 개시하기로 한 동시에, 6월부터 생산능력(35밀리웨이퍼 기준)을 3만 5천대로 확대
 - 무라타제작소는 스마트폰에 조립되는 주요 전자부품의 하나로 특정 주파수의 신호를 추출하는 SAW필터의 생산능력을 확대
 - 코일 전문 생산업체인 동광은 전원회로에 사용되는 소형품의 생산능력을 금년도에 월생산량 4억 개로 전년보다 2배 이상 확대
 - 소니도 CMOS(상보형금속산화반도체)센서 공급을 확대할 계획임
- 일본의 스마트용 부품제조업체들이 증산에 나선 것은, 약 50%의 세계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애플과 삼성의 신제품 투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
 - 지난 4월 갤럭시-S4를 발매한 삼성은 그동안 기간부품을 내제해왔으나, 스마트폰의 급성장으로 자체생산만으로는 부족하여 외부조달을 확대
 - 금년 여름까지 애플에 공급하기 위한 부품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일본 국내 유력 부품공급업체가 예상하고 있는데, 엔저도 일본 부품업체들의 증산의욕을 높여주고 있음
- 미국 IDC에 의하면, 스마트폰의 세계시장규모는 2012년에 전년 대비 약 2억 3천만대로 증가, 7억 2,200만대로 이룸
 - 2013년에는 약 2억대 증가에 머물러 증가율 자체는 저하되나 스마트폰의 박형화를 위해 고정밀부품에 강한 일본메이커에 대한 조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
- 그러나 스마트폰의 판매동향이 부품메이커의 경영을 좌우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, 일본의 부품업체들로서는 삼성과 애플에 과도한 의존을 피하면서 제 3의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지적

5 한국관련위치

□ 일본기업의 한국진출 지원을 위한 韓日 은행 간 제휴

- 국민은행과 일본정책금융공고가 제휴하여 일본 중소기업들의 한국진출을 지원하기로 함
 - 일본정책금융공고가 신용정보 제공과 신용보완을 담당하고 국민은행이 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저리·원화융자를 실시
 - 일본의 은행이 한국의 대형은행과 이 같은 방식으로 제휴하기는 처음
- 국민은행 본점에 이미 일본기업 담당팀이 설치되어 있으며, 이르면 5월중 일본 정책금융공고의 융자처와 JETRO가 지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
 - 업종별로 적합한 진출대상 입지를 소개하거나, 한국의 유망기업과의 거래를 중개하여 일본기업들의 한국진출을 촉진
- 국민은행의 대출 금리는 0.5~5%정도이며, 여기에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신용이 보완됨으로써, 한국에 진출하는 일본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한국기업들이 일반은행으로부터 적용받는 금리 보다가 낮게 됨
- 국민은행은 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일본정책금융공고의 거래처 200개 기업 가운데 우선 10개 기업 정도에 대한 융자를 목표를 하고 있음